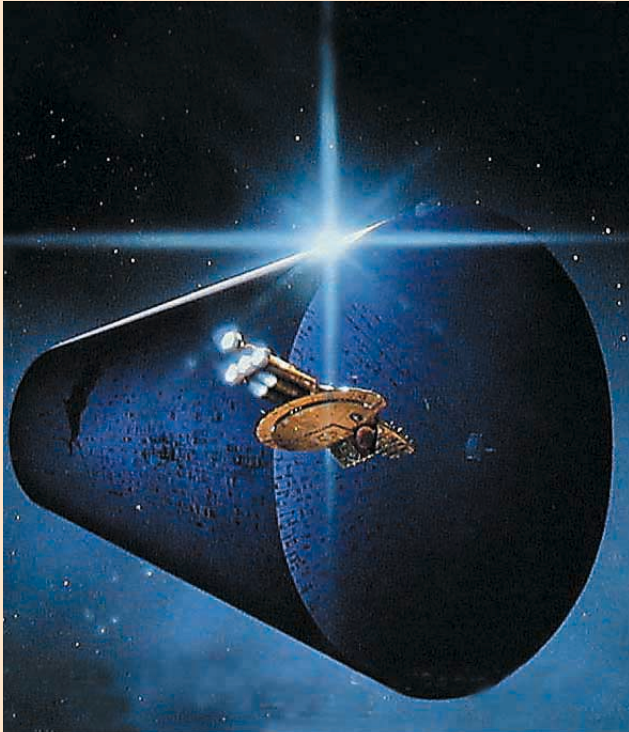


라마와의 랑데부

글_ 박상준 SF칼럼니스트 cosmo@chol.com



‘라마와의 랑데부(Rendezvous with Rama)’는 2001년 우주주의 오디세이’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SF작가이자 미래학자 아서 클라크가 1973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발표 당시 휴고상과 네블러상을 비롯한 주요 SF문학상 네 가지를 모두 석권했다. 그리고는 곧 SF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최초의 접촉’ 분야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다.

‘최초의 접촉’이란 글자 그대로 인류가 다른 외계 문명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반드시 살아있는 외계인이 아니라 그저 다른 외계 문명, 또는 외계 생물의 흔적만일지라도 ‘최초의 접촉’이 되는 것이다.

‘라마와의 랑데부’는 최초의 접촉 테마를 하드(hard) SF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묘사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드SF’란 과학기술적 묘사의 정밀함에 중점을 두는 SF들을 말하

는데, 다른 작품들의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나 이론을 동원해가며 생소한 감흥을 주려고 애쓰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일반인들은 SF에 대해 지레 겁먹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아서 클라크의 작품들은 놀랍도록 생생한 현실감을 자아내면서도 그 배경이 되는 과학지식은 결코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점에 섰다고 할 만한 작품이 바로 이 ‘라마와의 랑데부’인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우주선은 기본적으로 인류가 미래에 우주궤도에 건설하려는 우주식민지 모델과 많이 닮아있다. 수십 km 길이의 거대한 원통이 자전하면서 그 원통의 안쪽 면엔 원심력에 의한 인공중력이 생기므로, 그 안쪽 면에는 작품에 묘사된 것처럼 바다나 도시의 건설이 가능하다. 또 원통 안쪽 공간의 중심부로 갈수록 인공중력이 약해지므로 공기의 부양력을 이용한 비행체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중력에 따른 아래 위 개념의 혼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간단한 과학적 이론을 응용해 재치있게 빠져나오는 장면 등은 감탄에 감탄을 계속 머금게 한다. 이 모든 치밀한 묘사들을 온전히 감상하는 데에는 그저 중학생 정도의 과학 지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3’의 철학이 지배하는 인공물체, 라마

22세기의 어느 날, 아득한 우주 바깥쪽에서 태양계로 접근해 오는 작은 천체 하나가 포착된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놀랍게도 그것은 길이 50km에 직경이 20km인 원통 모양의 인공물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지구는 순식간에 떠들썩한 흥분에 휩싸이고, 즉각 ‘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뒤 분석에 들어간다. 궤도 계산 결과, 라마는 광속도의 1% 정도 되는 속력으로 아득한 우주공간을 무려 20만 년 가까이 날아온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마침 가까이 있던 우주탐사선 인데버호가 탐사를 시작하자, 라마는 안쪽 공간이 텅 비어있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밝혀진다. 살

Rendezvous with 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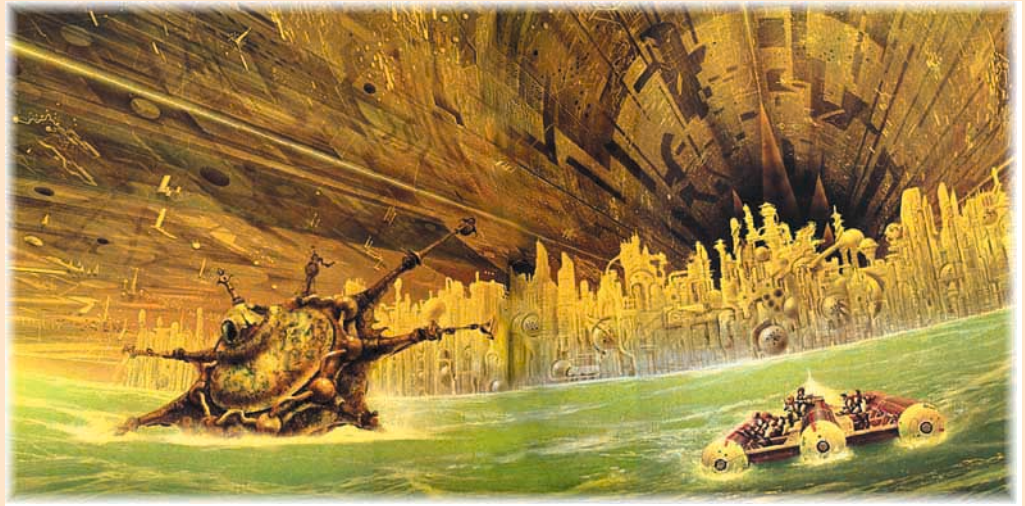
아있는 물체는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주인을 잃은 '우주의 방주' 같은 것이었다.

라마의 안쪽 표면엔 길이 방향으로 도랑 같은 것이 세 줄씩 나 있었으며, 중간쯤에는 마치 원통의 안쪽을 빙 둘러서 띠를 두른 것 같은 모양으로 바다가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는 섬이 하나 있고, 그 섬에는

도시가 있었다. 라마는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자 마치 잠자고 있던 스위치가 작동한 것처럼 살아나기 시작한다. 긴 도랑처럼 보였던 것은 밝게 빛을 내면서 일종의 인공 태양이 되었고, 태양열을 받아 라마 내부의 공기가 데워지면서 바람과 같은 활발한 대기 운동도 일어난다. 게다가 라마 내부의 공기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성분이었다.

한편 탐사대는 라마의 바다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건너 갈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데, 젊은 사관인 팩 소위가 자원하여 나선다. 그는 달이나 화성에서 스포츠용으로 뿔뿔 자전거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마 내부공간의 중심부는 인공중력이 약하므로 팩 소위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페달을 밟아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라마의 바다를 건너간다. 그러나 건너편 해안에 도달하고나서 얼마 지나지않아 갑자기 대기중의 정전기가 높아지면서 고도를 잃고 추락하고 만다. 난감해진 팩 소위 앞에 갑자기 거대한 거미 모양의 생물체가 나타난다. 팩 소위는 외계인과의 최초 접촉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긴장하지만, 그 거미는 비행기의 부서진 잔해만을 챙겨 들고 사라져버린다.

그 즈음 탐사대 캠프에도 팩 소위가 본 것과 비슷한 정체불명



의 생물체들이 나타나는데, 관찰 결과 그들은 일종의 생체로봇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탐사대는 그들을 바이옷(Biot:바이올로 지컬 로봇)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이옷의 종류는 무척이나 많았지만 그들은 전혀 지구인들을 의식하지 않고 청소 따위의 작업에만 열중한다. 사실 바이옷들은 라마를 유지, 보수하는 로봇 관리인들이었던 것이다.

탐사대는 작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가서, 그 곳의 도시를 주의깊게 탐사한다. 그들은 그 곳에서 일종의 박물관같은 장소를 발견하는데, 그 곳에 보관된 물건들과 라마 자체의 내부구조 등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라마인들의 세계는 '3'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모든 것이 3으로, 또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라마는 태양으로 접근하고, 인데버호는 라마를 떠나 멀리서 지켜본다. 라마는 태양으로부터 일종의 에너지 충전을 받는 것 같았다. 그 뒤 항로를 바꾼 라마는 다시 태양계를 뒤로 하고 가없는 우주공간으로 사라진다. 언제,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얼마나 더 날아 갈 것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로 말이다. ㉑